

전남 농경문화 가치 세계에 알린다

전남도농업박물관(사진)이 올해 남도 전통 농경 민속을 알리고 전남 농경문화 가치를 계승·보존하기 위한 이색 전시와 체험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전남 쌀 문화와 줄다리기 등 지역의 전통 민속문화를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려 '글로벌 박물관'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의 '2025년 전시·체험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동아시아 쌀 특별전'을 개최해 전남 쌀이 동아시아 문화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조명할 계획이다.

특별전은 '농도' 전남이 국내 최대 쌀 생산지이지만 쌀 소비량이 급감하며 갈수록 위기에 내몰리는 쌀 산업과 쌀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전남지역을 넘어 쌀 문화권인

농업박물관, 동년 쌀 특별전·세계 줄다리기 대회 개최 학술 포럼으로 전문성 제고·도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동아시아 쌀 문화'를 함께 다루며 글로벌 시장에서 전남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전시회는 쌀의 기원부터 시대별 농경 생활상, 각종 농경 유물 등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 소중한 식량 주권이자 삶의 근원인 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쌀과 관련된 전통

유산과 의례, 음식 등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색 전시 프로그램으로 농약과 농기구 변천사, 떡살, 쌀 그림 그리기 대회, 쌀 상품 판매전, 청년 쌀 요리 경연대회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경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연중 농기월령에 따라 진행되는 농경 체험 프로그램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민속놀이를 시작으로 화전 만들기, 모내기, 전통 벼 베기, 고구마 수확 등 다양한 농경문화와 민속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로 치러진다.

산농제 재현과 세계유산 줄다리기 대회 등 대규모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남 전통 농경문화를 알릴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유산 줄다리기 대회'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줄다리기 풍습을 재현하고 의미를 전승·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지역은 드넓은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줄다리기가 행해진 지역으로 역사·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다.

박물관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전남도 농업박물관은 오는 2월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등 다채로운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와 함께 전문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 학술포럼에서는 지역 민속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달집태우기와 강강술래 등 전남지역 정월대보름 전통 민속과 놀이의 의미와 현대적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또 '농경문화 체험 1번지'인 전남 농



업박물관의 위상과 전문성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어린이 등 도민이 함께 참여할 기회도 다양하게 마련한다. 최근 농경문화관 어린이체험실을 리모델링, 어린이 등 관람객이 농경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있다.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모내기와 썬레질(모를 심기 위해 땅을 고르는 작업) 등 농업을 그림으로 익히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제출하면 연말 그림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설전시관 3곳

을 모두 관람하고 인증하면 '씨앗 새싹 연필'을 무료로 나눠주는 '스텝프 투어'를 진행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김옥경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도민과 함께 다양한 전통 농경문화를 향유할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며 "특히 올해는 박물관 전문성과 역량 기반 확대를 위해 학술포럼과 세계 특별전·대회 등을 함께 추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1월 친환경농산물 '무안 유기농 당근'

비타민A·베타카로틴 다량 함유 피부미용·면역력 강화에 효과



무안 시설하우스에서 유기농 당근을 수확하는 강행원·정수현 부부.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1월 이달의 친환경농산물로 무안의 깨끗한 황토밭에서 자란 '유기농 당근'을 선정했다.

당근은 다양한 식재료로 사용하는 채소로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고 눈과 혈관 건강에 좋다. 피부 미용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시설하우스에서 유기농 당근을 수확하는 강행원(51) 무안군친환경농업협회는 2002년 무안 현경면에서 부인 정수현씨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시작, 22년째 실천하고 있다.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다가 화학농약에 중독돼 고생한 경험이 있는 강 회장은 어릴 때부터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사를 짓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이후 대학에서 공부한 식물생리학을 바탕으로 유기농업을 고집하고 있다.

그는 귀농에 관심있는 청년 농부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농작물 품목 선택과 재배 기술, 친환경농산물 시장 동향 등을 알려주는 멘토 역할도 자청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행원 회장은 고구마, 양배추, 당근, 무, 쪽파, 블루베리 등 19ha(5만7천500

평) 면적에서 10여개 품목을 재배한다. 이 중 유기농 당근은 1.3ha로 지난해 8을 생산해 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강행원 농가의 유기농 당근은 미생물농법과 해풍으로 영양분이 풍부하고 단맛이 높다.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과 채소 분야 품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농업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전남지역 농업 빅데이터 사업 본격화

도농기원, 시설채소·노지작물 10개 작목 85개소 대상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2일 "올해 전남지역 주요 시설채소와 노지작물 10개 작목 8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재배환경, 주 단위 생육변화, 경영 정보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집된 데이터는 정제·검증 과정을 거쳐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작물 생육진단 프로그램 개발, 모바일 기반 환경제어장치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양파와 같은 노지작물과 토마토 등 주요 시설채소의 기상·토양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 농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9명의 데이터조사원을 채용해 전문교육을 실시한 뒤 9개 작목 87개소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농가 맞춤형 기술지원을 512회 제공했으며 빅데이터 기반 유용서비스 개발 등의 연구 데이터를 지원해 효용을 얻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주관 스마트농업 성과대회에서 현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재정기자

농협광주본부·광주검사국, 합동 식품안전 특별점검

농협중앙회 농협광주본부는 22일 "광주검사국과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농협광주본부는 설 명절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하나로마트 등 소관 판매장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수용품 등 설 명절 성수품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며 광주검사국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내용은 ▲원산지표시 적정성 확인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점검 ▲



냉장·냉동식품 보존기준 준수 확인 ▲ 위생적 취급 준수 점검 등이다.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모

든 유통사업장에서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